

# 2025 January

# Hana

#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12월 동향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급등 양상으로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12월 FOMC 매파적 영향 등이 더해지며 상승 추세 유지. 이후, 대내적 정국 불안 지속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 등으로 하락 전환

국내 정치리스크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금리 급등 출발 후, 당국 시장 안정 조치와 안전자산 선호 요인에 의한 수급 우위 등으로 하락 전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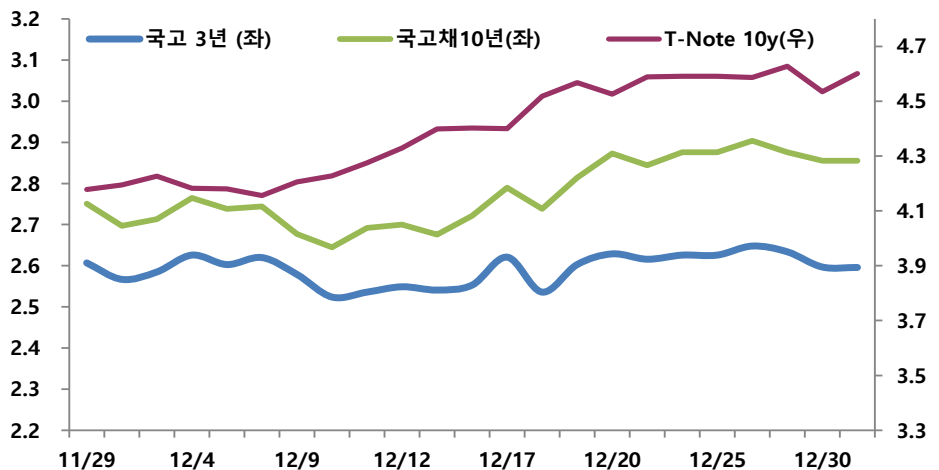
탄핵 정국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금리 상승 압력 확대한 국면 속에 추경 관련 이슈와 FOMC의 매파적 영향 등으로 상승 흐름 전환

국내 정치리스크 확대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지만, 미 11월 PCE 지표의 시장 예상 부합과 국내 기관의 우호적 수급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마감

- 월초, 우호적 대외 환경을 반영하여 하락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국내 정국 리스크 확대로 급등. 이후 당국 시장 조치 및 안전자산 선호 요인에 의한 긍정적 수급 요인 속에 하락 재전환
  - 월 초, 한은 비둘기적 스탠스 반영과 국내 소비자물가 시장 예상 부합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 이후, 국내 정국 리스크 발발에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상승하던 금리는 정책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로 소폭 하락 전환 후, 안전자산 선호 요인 반영 등에 의한 긍정적 수급 흐름 속에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탄핵 정국 불확실성 확대 속 상승 흐름 후, 긍정적 수급 우위 영향으로 하락 전환. 이어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추경편성 가능성과 12월 FOMC의 매파적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 양상
  - 중반,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 시장 약세 국면이 이어진 후, 안전자산 선호 요인 반영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긍정적 수급 우위 전환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전환.
  - 이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경 편성 가능성 논의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 등으로 상승 흐름 나타난 후,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점도표 하향 영향 반영하며 급등 흐름세 지속된 양상 시현
- 후반, 미 11월 PCE 가격지수가 전월비 0.1% 오르는데 그치며 시장 예상 하회했지만 미국채 금리 상승을 추종한 가운데 외국인 수급 등도 상승에 영향. 이어 국내 정치 리스크 확대에 따라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 강화되었으나, 기관의 우호적 수급 유입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후반, 미 11월 PCE 가격지수가 전월대비 0.1% 오르며 시장 예상 하회한 영향이 반영되었지만, 이후 미국채 금리 상승에 동조 흐름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수급 영향 등으로 상승 지속
  - 이어 국내 정치리스크 영향으로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 강화된 흐름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권한대행 탄핵 의결에 의한 영향은 제한된 양상. 이후 기관 우호적 수급 유입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12월 평균  
국고채(3년): 2.59%  
T-Note(10년): 4.4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1 월 전망

미 경제 견조함 반영한 연준 점도표 축소에도,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연초부터 확대될 우려와 정국 불안정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 시장 선제적 가격 반영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평균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45 <sup>(F)</sup>	2.35 <sup>(F)</sup>	2.50 <sup>(F)</sup>	2.45 <sup>(F)</sup>

연준의 '25년 금리 점도표 축소 영향이 대외 금리 상방 압력에 영향을 다소 미칠 가운데 국내적 상황 고려 시, 국고채 금리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이후 국내 시장주체의 경제심리지표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대형 악재 지속 등으로 심리적 피로도도 상승. 정책 당국의 대응을 기대하는 시장은 선제적 가격 반영을 통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칠 듯

1월 국고채(3Y) 금리는 2.45%-2.60%

- '25년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상황과 견조한 경제 흐름을 고려한 연준 점도표 축소 영향에 따른 대외 금리 상방 압력 유효성은 단기적 국고채 금리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 양대 책무에 동일 가중의 정책 운영을 표명. 하지만 점도표 축소는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 다소 고용에 중점을 둔 상황으로 판단되는 상황
  - 이러한 상기 측면을 반영, 경제 활동이 여전히 견조함을 표명한 가운데 점도표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할 점이 단기적 미 국채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속에 국고채 금리에는 대내적 정국 불안 등의 상황을 반영하며 하단 지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전월 정치 불확실성의 실물 경제 영향은 현재 불분명. 다만, 민간, 기업 등의 심리지표가 빠르게 둔화하는 양상. 여기에 연말 대형 악재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적 피로도 누중도 국내 경제 연초 활력에 크게 장애요인으로 예상되는 점이 국고채 금리 선제적 하락을 견인할 전망이다

  -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이후 경제의 민간 소비심리지수가 전월비 12.3p 하락한 88.4p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심리지수도 4.5p 하락하며 내수 관련 지표가 크게 악화. 여기에 1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지난 연말 대형 악재 발생도 시장주체들의 경제심리 피로도 상승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연초 국내 경제 활력의 큰 폭 악화가 예상되는 측면 등이 국고채 금리 가격에 선제적 반영되며 하방 압력이 다소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 '25년 국내 성장 하방 위험이 확대된 가운데 정국 불안정성 장기화 전망 등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 현 정국에서 단기 재정부양 조기 실행 가능성이 낮을 전망 속 연초부터 적극적 통화 완화 기조 전환 예상되는 점이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속 '25년 내수 부진이 성장 하방 압력 확대할 가운데 미 통상 불확실성도 외수 위축 요인으로 판단. 이에 한은 정책이 이들을 고려, 공격적 완화정책으로 초반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대내적 정국 교착상태 장기화 시, 내수부진에 따른 추경 편성 또는 재정부양 정책에 대한 조기 실행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국고채 금리 인하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미국 경제의 견조함 고려한 점도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국 불안정성 속 경기 하방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점중</li> <li>· 대내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재정부양 정책의 조기 실행 가능성 다소 제한적 측면</li> </ul>

# 달러/원 환율

12월 동향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에 환율 급등 후 12월 FOMC의 매파적 금리인하 여파 속 달러 강세 영향이 더해지며 장중 1,480원대까지 상승. 다만, 당국의 시장안정 노력에 추가 상승은 제한된 형국

미국 경제의 견조함에 글로벌 강달러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 정국 혼란까지 가중되며 환율 급등했으나 당국의 시장안정 의지 표명에 상당 제한된 국면

- 월초, 미 제조업회 회복 기대감과 프랑스 정국 불안 속 유로화 약세 등이 부추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급락 등 대내외 요인이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
  - 월초, 미 제조업 경기 개선과 프랑스 내각 붕괴 여파로 인한 유로화 약세에 강달러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국내 정치 리스크로 원화 자체의 약세 압력이 더해지며 환율은 1,400원대에 진입
  - 이후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조치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상승세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에 1,430원대로 상승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속에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12월 FOMC 여파로 달러 강세 심화하며 환율은 상승세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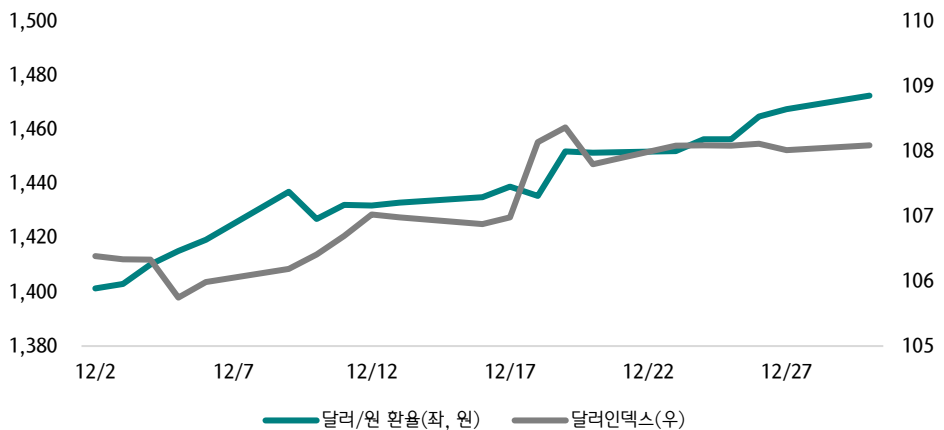
- 월 중반, 연준의 세차레 연속 금리인하 단행에도 내년 인하 횟수 축소와 신중한 정책기조 강조 등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와 대내 정치 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환율 상승세 지속
  - 중반, 시장 예상에 부합한 미 11월 CPI에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으나 더딘 물가 둔화 속도로 인해 향후 인하 속도는 늦춰질 것이란 전망 속에 달러 강세 지속되며 1,430원대 등락
  - 이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인식과 국내 조·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연준 점도표상 인하 횟수 축소 등 매파적 FOMC에 1,450원대까지 상승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와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 등 원화 절하 압력에 1,400원 후반대로 상승 마감

- 후반, 당국 시장안정 노력에도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정국 불안 고조 등 대내외 리스크에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되는 국면 속에 1472.5원에 연간 증가 마감
  - 후반,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의지 표명과 미 PCE물가 예상 부합에 따른 안도감에도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기인한 달러 강세와 수급상 매수 우위 영향에 하방은 경직성을 보임
  -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장중 1,486.7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당국 개입 경계감과 연말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 등에 상당 제한되며 1,472.5원으로 '24년 증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36.8  
12월말 달러/원 환율 : 1,472.5



# 1 월 전망

연준 금리인하 경로 불확실성과 미 신정부 정책 리스크 등 대외 여건 악화 속에 국내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원화 약세 부담이 가중되며 환율 상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평균	1Q25	2Q25	3Q25	4Q25
달러/원 환율(원)	1,450 <sup>(F)</sup>	1,480 <sup>(F)</sup>	1,440 <sup>(F)</sup>	1,400 <sup>(F)</sup>

연준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축소와 미 신정부가 추진할 통상정책 등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은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길 요인으로 판단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한은 통화안화 가속화와 대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부재한 점에서 환율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1월 달러/원 환율  
1,450원 ~1,495원 예상

- 연준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미 신정부 정책 리스크가 향후 연준 행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달러 강세는 심화할 전망이다
  - 12월 FOMC 이후 '25년 금리인하 횟수가 2회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연준 위원의 매파 성향 강화에 강달러 추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1월 금리인하 중단 시 달러 강세 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 인플레이션이 2%대 중후반 수준에서 정체된 국면 속에 미 신정부의 정책 향방에 따라 재가속화될 리스크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준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일 측면은 달러 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 기조 하에서 미국과 그 외 주요국 간 성장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더욱 부각될 경우 강달러 압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 리스크가 부각될 가운데 취임 즉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교역 위축 우려에 강달러 심화하며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우려 속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ECB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BOI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주요 통화의 약세 흐름이 예상되는 점도 달러 강세 기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
- 대내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은 완화적 정책 기조가 강화될 측면도 원화 약세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 신정부 통상정책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내수 부진과 투자심리 위축 등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위험에 직면한 상황과 정치 리스크 등은 원화 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의 비둘기 색채가 더 짙어질 점에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원화 약세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의지는 상단 제한할 전망이다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과 트럼프 정책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li> <li>· 한국 경제의 저성장 리스크와 한은 통화안화 기조 강화에 따른 원화 약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노력</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일본내 저성장 국면 이어질 전망 속 외수 부문 회복력은 여전히 낮으나, 내수 부문 소폭 회복 예상. 그러나 1월 미 신정부 출범 후, 경제통상 불확실성 상존에 BOJ의 1분기내 통화완화 지속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 지지할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4.1  
12월 엔/원 평균환율 : 934.2

1월 엔/원 예상범위 : 940~965원

- (엔화 동향) BOJ 정책 위원의 금리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도 미약한 경제 회복세에 금리인상 기대감이 떨어진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 출발. 중반, 이어 12월 금정위 금리동결은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추가 긴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점이 엔화 약세를 자극. 후반,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하 기조로 인한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158엔선을 상회했으나 일본 당국의 연이은 구두개입에 약세 폭을 일부 되돌리며 156엔대 마감
- (엔/원 전망) 서비스 PMI 4개월 확장세 지속하며 외수 대비 내수 부문 회복세 강화되는 국면 여기에 11월 물가도 전년대비 2.7% 상승 속 반등세 전환하며 긴축에 대한 기대 요인 상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통상환경 등을 고려 1분기 이내 긴축 전환으로 선회하지는 않은 전망. 이러한 후자 요인에 따른 측면이 엔화 약세 지지할 전망
- 서비스 PMI 확장세 강화 등 수출 관련 부문 대비 내수 부문에서의 점진적 회복 양상 강화되는 국면. 11월 소비자 물가도 2.7%(YoY) 상승함에 따라 시장의 긴축 기대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
- 다만, 무역수지 부문 등 외수에 대한 역량 강화가 지지되지 않고 있는 양상 속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을 고려 BOJ의 1분기 이내 추가 긴축 부재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엔/원 환율은 최근 국내 정정 불확실성에 의한 원화 약세 지속에 950원 전후까지 상승 예상

## 유로/원 전망

ECB 공격적 금리인하로 서비스업 확장에도 제조업 부문 불확실성 이어지며 성장 하방 압력 지속 예상. 여기에 미국 對중국 통상 마찰 영향 전이와 유로존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 금리인하 지속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463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05.9

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80~1,540원

- (유로화 동향) 프랑스 정국 불안 속 유로화는 약세 출발했으나 야당 원내 대표의 예산안 통과 가능성 시사에 안도감이 유입되며 반등. 중반, ECB의 연속 금리인하 결정과 추가적인 통화완화 예고에 약세 압력을 받는 가운데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로 인한 강달러에 1.03달러대로 하락 전환. 후반, 예상치를 하회한 미 PCE물가에 위험선호 심리가 나타나며 소폭 반등했으나 독일 성장 둔화와 완화적인 ECB 정책 기조에 재차 약세를 보이며 1.03달러대 마감
-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가 45.2로 여전히 위축 국면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하방 위험 잔존. 여기에 트럼프 2기 체제 이후 고율 관세 불확실성 등이 성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에 따라 2분기 전후까지 공격적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질 전망 등이 연초 유로화 약세 흐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기간 공격적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서비스업 확장에도 여전히 제조업 PMI는 위축 국면 지속되며 성장 하방 압력 지속되는 상황. 여기에 내수 또한 하방 위험이 이어지며 ECB '25년 초 금리인하 지속 전망
- 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 후 중국과 통상 마찰 요인 및 유로존에 대한 미 관세 불확실성도 성장 부담 요인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원은 최근 국내 정정불안에 따른 상대적 원화 약세로 상승세 지속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 한국 휴장(신정)</b> [휴장]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중국(신정) 한 12월 수출/입 잠정치(YoY +1.4%, -2.4%)	<b>2 2025년 첫 주식 거래일</b> [휴장] 일본(뱅크홀리데이) 2025년 첫 주식 거래일(10시 개장) 한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0.6) 미 11월 건설지출(MoM +0.4%)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중 12월 Caixin 제조업 PMI[F](51.5) 유 12월 HCOB 제조업 PMI[F]	<b>3</b> 한 4Q GDP[P](QoQ +0.1%, YoY +1.5%) 미 12월 ISM 고용, 제조업, 구매물가 독 12월 실업수당 청구율(6.1%)	<b>4</b>
<b>5</b>	<b>6</b> 미 11월 제조업수주(MoM +0.2%) 내구재 주문[F] 1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중 12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유 12월 HCOB 서비스, 종합 PMI[F] 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17.5) 일 12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b>7 CES 2025(~10)</b> [CES 2025(~10)] 세계 최대 규모 IT, 가전 전시회. 올해 주제는 '몰입(Dive In)', 핵심 테마는 인공지능(AI) [채권] 미국 3년을 국제 입학 미 12월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문 유 11월 실업률(6.3%) 12월 CPI[P](MoM -0.3%, YoY +2.2%) CPI 근원[P](MoM -0.6%, YoY +2.7%)	<b>8 지준일</b> <b>12월 FOMC 회의록 공개</b> [채권] 미국 10년을 국제 입학 미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ADP취업자 변동(146k) 유 11월 PPI(MoM +0.4%, YoY -3.2%)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호 11월 CPI (YoY 2.10%)	<b>9 옵션만기일</b> <b>옵션만기일</b> [채권] 미국 30년을 국제 입학 미 12월 Challenger Job Cuts(YoY +26.8%) 중 12월 통화공급 M2(YoY +7.1%) 유 11월 소매판매(MoM -0.5%, YoY +1.9%) 일 12월 공작기계 수출[P](YoY +3.0%)	<b>10 미국 고용보고서</b> <b>11</b> 미 1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227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2%)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경제활동 참가율(62.5%) 1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11월 섀넥스, 동행지수[P]	
<b>12</b>	<b>13</b> [휴장] 일본(성년의 날) 한 11월 통화공급 M2(MoM +1.0%) 12월 실업률(2.7%) +3.0%) 수출물가(MoM +1.1%, YoY +7.0%) 1월 1~10월 수출/입 (YoY +12.4%, +11.6%)	<b>14</b> 미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101.7) PPI(MoM +0.4%, YoY +3.0%) PPI 근원(MoM +0.2%, YoY +3.4%) 일 12월 경기관찰조사 연행, 전망(49.4)	<b>15 미국 CPI</b>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한 12월 수출/입 확정지(YoY +1.4%, -2.4%) 미 12월 CPI(MoM +0.3%, YoY +2.7%) CPI 근원(MoM +0.3%, YoY +3.3%) 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0.2) 중 12월 실업률(5.0%), 광공업생산(YoY +5.4%) 소매판매(YoY +3.0%) 4Q GDP(QoQ +4.6%, YoY +4.8%) 유 11월 산업생산(MoM -0.5%, YoY +1.9%)	<b>16 한국금융통화위원회</b> <b>18</b>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3.0%로 2연속 인하 결정 (2) 25년 첫 금통위. 한은은 환율과 내수 흐름 고려해 기준금리 결정방향을 미 12월 소매판매(MoM +0.7%) 소매판매 근원(MoM +0.2%) 광공업생산(MoM -0.1%), 설비가동률 1월 NAHB 주택시장지수(46) 일 12월 PPI(MoM +0.3%, YoY +3.7%)	<b>17</b> 미국 옵션만기일 미 12월 주택착공건수(MoM -1.8%) 건축허가(MoM +5.2%) 광공업생산(MoM -0.1%) 유 12월 CPI[F](MoM -0.3%, YoY +2.2%) CPI 근원[F] (MoM -0.6%, YoY +2.7%) 영 12월 소매판매(자동차연료제외, 포함 MoM 0.3%, 0.2%/YoY 0.1%, 0.5%)	
<b>19</b>	<b>20 트럼프 행정부 출범</b> [휴장] 미국(마틴루터킹데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24) 한 12월 PPI(YoY +1.4%) 유 11월 건설 생산(MoM +1.0%) 일 11월 핵심기계수주,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b>21</b> [채권] 미국 1년을 국제 입학 한 1월 1~20월 수출/입 (YoY +6.8%, +7.5%) 미 1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16.4) 유 1월 ZEW 서베이 예상(17) 영 12월 실업수당청구자비율 (4.6%)	<b>22</b> [채권] 미국 20년을 국제 입학 한 4Q GDP[A](QoQ +0.1%, YoY +1.5%)	<b>23 BOJ 금융정책위원회(~24)</b> <b>25</b> [BOJ 금융정책위원회(~24)]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로 3연속 동결. 트럼프 불확실성 높다는 판단 (2) BOJ는 내년 임금 동향 등을 파악한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한 여부 결정한다는 입장 일 12월 수출/입(YoY +3.8%, -3.8%)	<b>24</b> 미 12월 기준주택매매(MoM +4.8%) 1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S&P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종합 PMI[P] 유 1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F] 일 12월 전국, 국내 CPI	
<b>26</b>	<b>27</b> [채권] 미국 2년을, 5년을 국제 입학 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88.4) 미 12월 신규주택매매(MoM +5.9%) 1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일 11월 동행지수, 섀넥스지수[F] 독 1월 IFO 기업활황(84.7) IFO 현재평가(85.1)	<b>28 미국FOMC (~29), 한국휴장</b> [휴장] 한국(설날), 중국(춘절) [미국 FOMC(~29)]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25%~4.50%로 25bp 인하하며 3연속 금리 인하 단행 (2) 점도표에서 25년 3.9%, 26년 3.4%로 상향 조형하며 25년, 26년 각각 두차례 인하 시사 미 12월 내구재 주문[P] 1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일 12월 PPI 서비스	<b>29 한국 휴장(설날)</b> [휴장] 한국(설날), 중국, 홍콩(춘절) [BOJ 12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호 12월 CPI YoY 4Q CPI YoY(0.8%)	<b>30 ECB 통화정책회의, 한국휴장</b> [휴장] 한국(설날), 중국, 홍콩(춘절)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3.0%로 3연속 인하 (2) ECB 총재는 물가 하방 위험 존재에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언급 미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A] 유 4Q GDP[A](QoQ +0.4%, YoY +0.9%) 12월 실업률	<b>31</b> [휴장] 중국, 홍콩(춘절) 미 12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1월 MNI 시카고 PMI 중 1월 Caixin 제조업 PMI[F] 일 12월 실업률, 광공업생산[P] 소매판매, 주택판매건수 1월 도쿄 CPI, CPI 근원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